

2026학년도 연세대학교 면접구술시험

정시모집 일반전형 국제계열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가] The film describes a world in which biological aging stops at twenty five, but life thereafter is determined by time itself. People are programmed with a clock embedded in their arm, counting down the hours, days, and years they have left to live. Time functions as currency: people earn it through labor, spend it on food, transportation, and housing, and transfer it directly from one body to another, even steal it from someone else to survive. Death arrives not through illness or age, but the moment the clock runs out.

The story is about Will Salas, a young man who lives in a poor “time zone.” He must work every day just to earn enough time to stay alive. One day, he meets a rich man who has hundreds of years of time but is tired of living forever. The man gives Will a vast amount of time and then ends his life.

[나] 시간은 노동자의 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모든 노동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간당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가 단기간에 지나치게 많이 일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정하기도 한다. 예컨대 미국은 여러 노동 관련 법규를 통해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통상적인 시간당 임금을 넘어서는 초과근무 수당을 고용주가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일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정하여 아동 노동을 방지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역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제정하여 노동자가 과도한 노동 시간, 지나친 저임금 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런 제도는 빈곤 퇴치와 사회 복지에도 도움이 된다.

이와 달리 경제 발전이 더딘 저개발국에는 노동 시간과 임금에 관한 제도가 부족하거나, 제도가 있더라도 이를 운영할 국가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과도한 노동 시간, 지나친 저임금, 아동 노동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다] 유니세프(UNICEF) 2024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억 6,400만 명의 아동이 출생 등록을 하지 못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인 9,100만 명이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5세 미만 아동의 출생 등록률이 51%에 불과하다. 유니세프는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출생 등록을 포함한 법적 신분을 보장받는 것을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주민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탄자니아 출신 언어학자 마톤도는 미국에 유학하기 전까지 자신의 나이를 모르고 살았다. 어머니가 많은 자녀를 낳았고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이를 몰라도 생활에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미국 유학을 위해서는 출생 등록 서류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기억을 더듬어서 자신의 나이를 정했다. 하지만 미국에 사는 동안에도 나이는 인위적인 숫자에 불과했을 뿐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라] 장자의 사상은 시간의 흐름에 얽매인 현대인의 사고를 해체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은 자아가 시간 속에 매달릴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모든 것은 변하며, 그 변화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도(道)와 함께 흐를 때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인은 잊는다.” 과거를 잊고, 미래를 묻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 도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시간의 통제를 벗어나 존재 자체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며, 인간 삶의 고통을 줄이는 가장 철학적인 제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장자의 사유를 통해 시간에 쫓기는 존재가 아닌, 시간과 함께 유연하게 흐르는 존재로서의 삶을 그려 볼 수 있습니다. 과거는 집착의 대상이 아닌 추억으로, 미래는 두려움이 아닌 가능성으로, 현재는 진정 살아 숨 쉬는 삶의 중심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문제 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20점)

[문제 2] 제시문 [라]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와 제시문 [다]를 평가하시오. (30점)